20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20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늘
예술인 곁에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모든 예술인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하여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언제나 늘
예술인 곁에 함께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하는 일

예술인 모두가 열정을 잃지 않도록!

예술인 창작역량강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모든 예술인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오직 예술을 향한 열정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행복한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술인 직업역량강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예술로 먹고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술인을 스스로 춤추게 하는
자립의 사다리를 놓아드립니다.

예술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술환경 개선&사회안전망 구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보다 안정된
제도망 안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CONTENTS

6 인사말 Greeting

16 인터뷰 Interview
- 예술인 복지 홍보대사
  배우 이순재
- 예술환경 개선
  변호사, 인하대 로스쿨 전임교수 홍승기
- 사회안전망 구축
  만화가 김보통
- 예술인 파견지원
  파래소국악실내악단 단장 황동윤
- 창작역량강화
  안다미로 아트 컴퍼니 대표 김정환
- 직업역량강화
  연극배우 천윤경

28 사업 성과 Business Highlights
- 숫자로 보는 예술인 복지사업 4년

36 재단 개요 Overview

37 연혁 History

38 조직도 Organization

40 복지정책 Road For Artists
- 예술인 복지정책이 걸어온 길

42 사업 소개 Primary Business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성과
- 44 창작역량강화
- 46 직업역량강화
- 48 예술환경 개선
- 52 사회안전망 구축
- 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일지

58 경영 및 홍보 Administration & Communications
- 60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62 예술활동증명
- 64 재단 홍보
- 66 2016년 예산

68 응원 메시지 Messages from Artists

20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4개년 동안의 활동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오직 방방곡곡
스며드는 예술인 복지를 위해 앞만 보며
걸어왔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은
촘촘한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설립 이후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에게 예술인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처럼 세계 유일의 '예술인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예술인 분들이 함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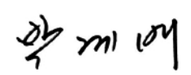
2016년은 「예술인 복지법」 제정 5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습니다. 먼저 지난 2월 3일 「예술인 복지법」 일부가 개정되어 5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구두 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면 계약 의무화',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등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예술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문화기관 1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심리적 위기 상황에 놓인 예술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방면으로 예술인 복지사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예술인 복지사업을 통해 약 23,000여 명의 예술인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드렸고,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느덧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정리하며 네 번째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야말로 촘촘한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4년 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여주었던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7년에도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 언제나 예술인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예술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는 귀 기울입니다. 예술인의 입장에서 예술인의 이야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을 열어 따뜻하게 손 내밀기 위해. 우리는 아름다운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세대를 넘어, 장르를 넘어 놀라운 감동을 만들어 내는 예술인들이 마음껏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술이라는 열정의 꽃을 피우게 하는 따뜻한 햇볕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는 응원합니다. 예술인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건강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노력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퍼져 예술인 복지가 방방곡곡에 스며들 때까지 말입니다.

나누다

We SHARE

적극적인
소통으로 거리를

우리는 소통합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예술인 복지 서비스의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만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열정과 현실, 예술과 사람, 예술인과 기업을 잇는 진정한 소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좁히다

We COMMUNICATE

최고의 서비스로 희망을 키우다

우리는 도약합니다. 예술인 복지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12년 11월「예술인 복지법」시행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과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재단이 다각도로 노력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예술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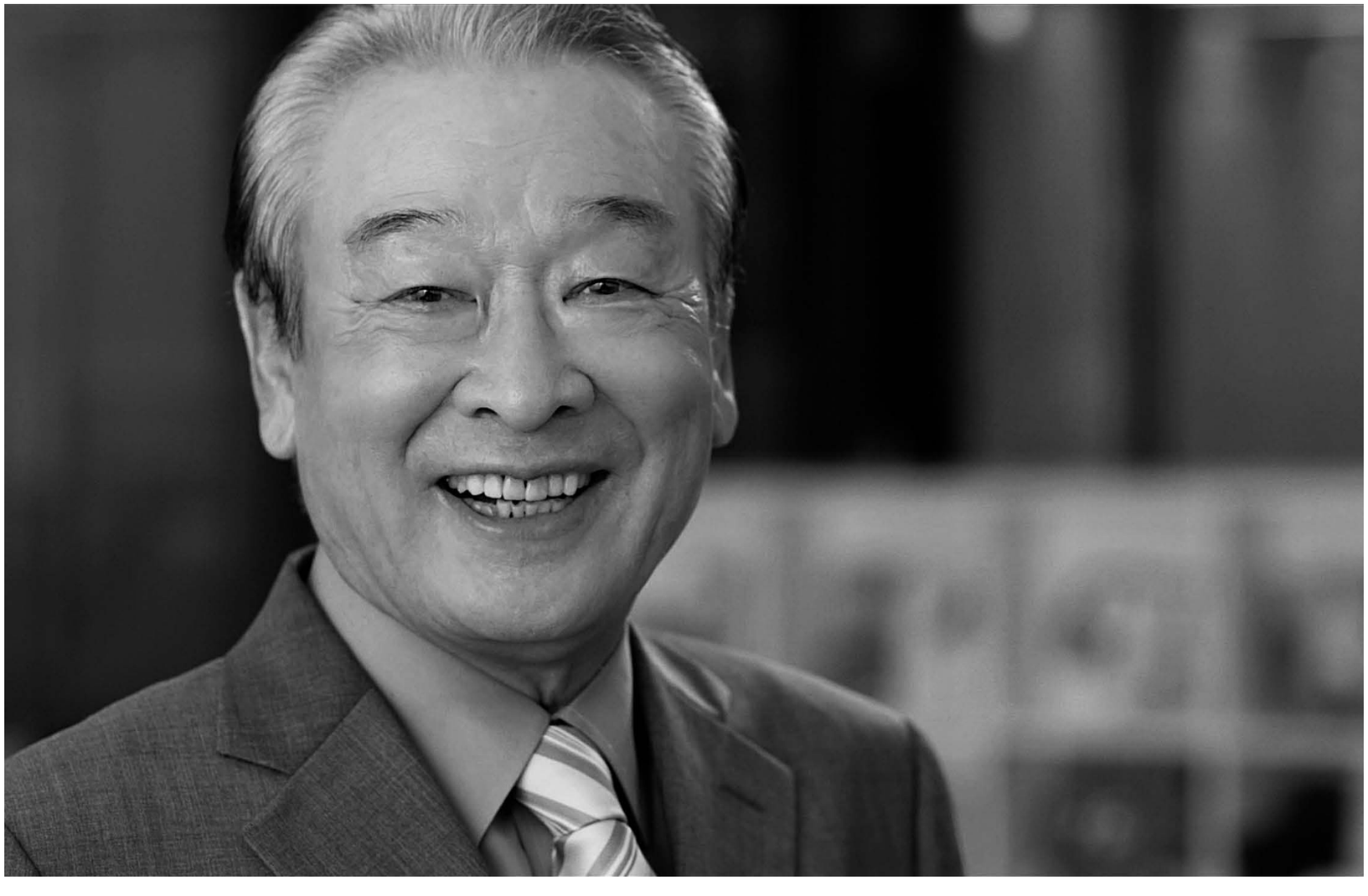


We HOPE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을 이야기하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연기자로 살고 싶다

예술인 복지 홍보대사
배우 이순재



2016년 2월, 예술인 복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이순재가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재능기부에 나섰다.

배우로서 예술인의 삶이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연극을 하던 1960년대에는 연극, 연기라는 건 돈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야도 돈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출연료가 워낙 열악해 대선배들이 말년에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정부와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300만 원은 말 그대로 창작을 위한 준비금, 예술인의 의지와 의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계기가 되는 돈이라고 봅니다. 신인이나 활동 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많은 대상을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니, 예산이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예술인 복지 홍보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단이 단순한 지원을 위한 후원단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야 근본적으로 예술인과 예술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에 종사하는 한 사람이자 연장자로서 마지막으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연기를 하실 건가요?
연기에 관심을 두게 된 건 대학교 때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배우를 딴따라라고 불렀지만, 해외에서는 배우들이 존경을 받았지요. 이런 예술이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연기를 하겠는가? 지금 같다면 얼른 하죠, 돈도 많이 버는데(웃음). 이 직종의 장점은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생에 대한 의욕이 생겨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술계 원로이자 선배로서 젊은 예술인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자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불확실하지만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기회는 분명 옵니다.

예술계, 불공정, 그리고 예술가의 권리

예술환경 개선
변호사, 인하대 로스쿨 전임교수 홍승기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던 무렵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지켜봐 온 홍승기 변호사는 재단의 출범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재단 사무국이 고안하는 재치 번득이는 사업들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진심으로 바랐다.

「예술인 복지법」이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든 생각이 궁금합니다.

복지법이 만들어지던 무렵 법의 내용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관에 대하여 의견을 달라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성의 없이 몇 마디하고 말았습니다. 가엾은 시나리오 작가의 비극적 죽음을 계기로 여야가 전격적으로 입법을 하였다는 생각에 재단이 불공정계약에 대한 분쟁조정제도를 만들겠다고 할 때도, 예술인 신문고를 설치하겠다고 할 때도 짜증만 냈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지켜보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나요?

인류사에 전례가 없는 조직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범은 실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멋지게 다듬어서 세계의 문명국가에 널리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단 사무국이 고안하는 재치 번득이는 발랄한 사업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듣게 된 예술인들의 고충은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계약서도 안 썼는데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말로만 한 약속, 즉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문제는 구두 계약은 입증이 쉽지 않았죠. 대학로에서는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쓰냐?'는 의식이 깔려 있었고, 서로 계약서를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이런 '무(無)계약서의 질서'를 뒤흔든 사건이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이른바 '사비타' 사건입니다. '제작자는 창작자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원리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 이후로 제작자들이 부산하게 저작권 계약을 하더라는 후문입니다.

예술계 내부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구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스태프의 미지급 임금 문제를 신문고를 가동하여 해결했고, 기타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소위원회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 내부 인사들의 주도로 여러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생산하여 온 점도 칭찬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술인에게 표준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송업계의 경우, 2015년 기여분에 따른 저작권 분배를 원칙으로 한 표준계약서가 공표되는 것을 보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공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은 명백합니다. 개정 「예술인 복지법」이 모든 불공정거래의 행태를 즉각 예술계에서 몰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예술인 보호를 위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보통’들이 만드는 세상

사회안전망 구축
만화가 김보통



젊은 암 환자의 투병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과 슬픔을 대면하게 한 〈아만자〉, 탈영병을 잡는 헌병 이야기로 군대 내 일상화된 폭력을 다룬 〈D.P: 개의 날〉. 누군가에게는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야만 하는 이야기였다.

〈예술인복지뉴스〉에 연재 중인 ‘예술인의 고민상담’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부당한 조건으로 일한 경험은 없지만 부당한 처우가 많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일을 하면서 예술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유용한 제도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예술인의 고민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성찰이나 실천보다 큰 틀에서 구조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개인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조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개인적인 노력을 그만둘 수도 없지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되,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익명의 고민에 대해 답변하는 만화 〈내 멋대로 고민상담〉을 연재하고 있기도 한데, 질문들을 관통하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위의 얘기와 연결되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패배자나 낙오자라 여기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당신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화살이 구조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하니까요.

결국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 전환이란 건 말장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중요합니다. 『빈곤에 맞서다』란 책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물망이 없는 사회’란 말이 있어요. 이 사회가 그래요. 실수가 용인되지 않고, 줄에서 한 번 벗어나면 끝장이니까요. 나 역시 이러저러한 사람이 보통이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위에 서 있어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물망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다양한 시도와 성취가 가능해진다

예술인 파견지원
파래소국악실내악단 단장 황동윤

대금연주자 황동윤은 서울에서 활동하다 5년 전부터 고향인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6년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참여예술인으로 제주 지역의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 예술가의 특별한 역할과 가능한 시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2016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서울에서 활동하다 고향인 울산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기가 재단이 출범했던 때와 겹치다 보니 재단 사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예술가가 자기 전공이나 역량을 발휘해서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것과 사업 취지가 마음에 들었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작업을 시도해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기업에 파견되었는데, 작업은 어땠나요?

내가 매칭을 원했던 곳도 아니고 나도 기업에서 원하는 예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행하는 데 고민이 많았어요. 다행히 리서치 기간이 충분했고,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기업 대표의 사고도 유연했죠. 이런 게 파견지원 사업의 좋은 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리서치와 고민 끝에 카페의 음악 부분을 컨설팅하기로 했고, 일반적인 카페 음악 말고, 관광지의 특수성에 맞춰서 전통과 잘 접목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울산 내 기업에 파견된다면 제주와는 분위기가 다를 텐데, 생각하는 바가 있나요?

기업이 많은 게 울산의 장점이지만 좀 경직된 분위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 내에서 기업과 매칭이 성사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퍼실리테이터가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예술가의 역량을 적절하게 조합해 표본을 만들어 내야 하고 여러 예시나 사례들을 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방향성을 처음부터 잘 잡아주어야 할 것 같아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관련한 평소 생각이나 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선정 후에 기업과 예술가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업과 예술가의 욕구가 서로 어긋나서 매칭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서 서로 만족스럽게 매칭이 되는 걸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건 제도적인 한계이기도 하고 전국적인 사업이 갖는 어려움이기도 할 것 같아요. 사업이 지속되고 계속 발전해 간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시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재단 측에서 홍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준비금은 꿈만 같은 선물

창작역량강화
안다미로 아트 컴퍼니 대표 김정환

현대무용 안무가이자 무용수로 안다미로 아트 컴퍼니를 3년째 운영 중인 김정환 대표는 창작준비금을 통해 1회 정기공연의 막을 올릴 수 있었다고 감사해 했다. 그는 창작준비금은 경력이 길지 않은 예술가도 받을 수 있고 정산이 까다롭지 않아 좋다고 웃음 지었다.

2016년 창작준비금 2차에 선정되었는데 그 소감이 궁금합니다.

재단의 지원금을 통해 1회 정기공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를 올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고 뜻 깊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정기공연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른 국고지원 사업들은 주로 3년 이상된 단체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신설 단체들은 지원을 받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안다미로 컴퍼니와 같은 작은 단체가 지원을 받지 않고 3년을 버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력이 길지 않은 예술가도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창작준비금은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사실 무용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산재보험을 알아보다가 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했거든요. 무용계에선 재단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술활동증명은 2015년도에 신청했습니다.

창작준비금에 대한 주변 예술인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창작준비금은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더 많아요. 연극도 무용도 다 그렇겠지만 순수예술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무용수는 공연을 통해서 성과를 보여주는데,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받게 되면 정산이 까다롭지 않아 좋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일상생활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입시비를 벌어야 했고 지금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레슨을 많이 합니다. 안무가로서 힘든 점은 외국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안무가가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술가와 협업한다면 모르겠지만 조명, 음악감독, 기획 등 혼자 다 해야 하는 것이 힘듭니다.



돌봄 지원 시설이 엄마 예술인의 삶을 바꾸다

직업역량강화
연극배우 천윤경

연극배우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에게 예술인 돌봄 지원 시설인 반디돌봄센터는 정말 고맙고 소중한 곳이다. 돌봄 지원 시설 하나가 많은 예술인, 특히 여성예술인의 삶을 바꾼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디돌봄센터는 언제 알게 되었고 얼마나 이용하셨나요?

2년 전 사단법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했던 대학로 어린이집을 이용했어요. 당시 연극인 우선순위 위탁기관이었는데, 그곳에서 반디돌봄센터 개관 소식을 알게 되었죠. 현재 큰아이가 6살, 작은아이가 5살인데 큰아이의 경우 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술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했나요?

시댁이 왕복 2시간 거리라서 매일 아이들을 부탁드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늘 봐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요. 공연은 생각도 못했죠. 그나마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들만 찾아 하면서도 늘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제 또래 배우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 키우면서 공연은 꿈도 못 꿔요. 제 경우 반디돌봄센터 덕분에 공연이 가능하게 된 거죠.

반디돌봄센터를 이용하며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가장 큽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건 그거니까. 연습이 늦게 끝나는 평일에 아이들을 어쩌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공연이 많은 주말에도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 있으니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고요. 예술인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느낄 거예요. 아이 걱정 없이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몇 시간이 얼마나 간절한지 말이에요. 아이들이 싫어하면 맡길 수 없을 텐데, 아이들도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해요. 집에 오면 센터에서 한 놀이, 프로그램,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적은 비용으로 무공해 식자재를 쓴 간식과 식사를 제공해주니까 그 부분도 안심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료들에게 센터를 추천하신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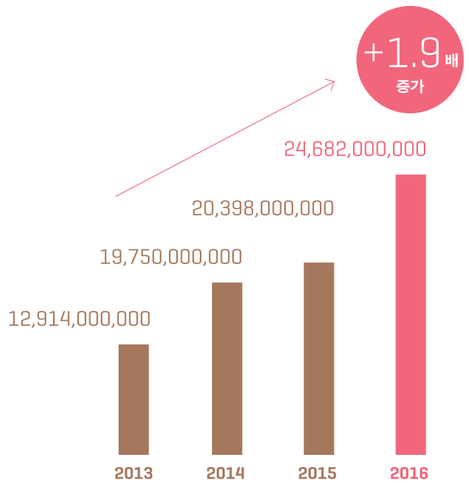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 센터 얘기를 하면 무척 부러워해요. 이곳이 아니었으면 저 역시 더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직업의 특성상 일정 변동이 많고, 규칙적이지 않은 일을 할 경우에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숫자로 보는
예술인 복지사업

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24,682,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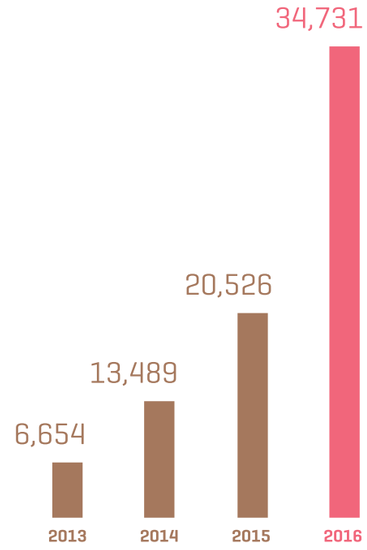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고	358	12,914	19,750	20,398	24,682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 예산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쓰이는 재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2013년 대비 약 90%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 직업역량강화, 창작역량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사회보험료 등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34,731명



2016년 12월 누적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를 받기 위한 참여 절차이자 법적 근거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 현장에서는 아직도 생소한 절차인 예술활동증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여 지금까지 34,731명의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11,214명

년도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인원
2016	예술인 창작준비금	1인 300만 원	4,000명
2015	예술인 창작준비금	1인 300만 원 (원로 200만 원)	3,523명
2014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1인 300~800만 원	1,860명
2013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 지원	1인 300만 원	1,831명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예술인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준비기에도 안정된 생활과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창작준비금은 지금까지 11,214명의 예술인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1,165명



2016년 12월 누적

예술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가입 가능한 '예술인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공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2016년에는 예술인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260% 증가하였습니다.

상담·컨설팅 서비스

209건

상담, 컨설팅 건수



2016년 연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법률 및 사회보장제도에 취약한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불공정관행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계약, 저작권,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컨설턴트 제도 운용을 통해 2016년 한해 209건의 상담·컨설팅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1,5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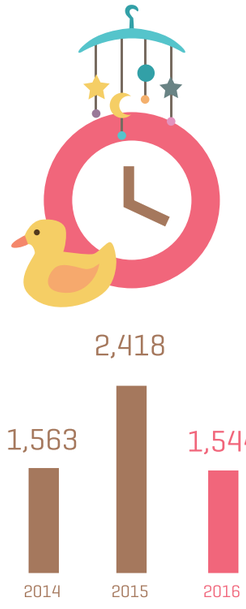


2016년 12월 누적(회계연도 기준, 연간 중복자 제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한 건강한 계약문화 정립 및 예술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왔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총 984명, 57개 예술단체(회사)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까지 총 1,542명의 예술인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5,5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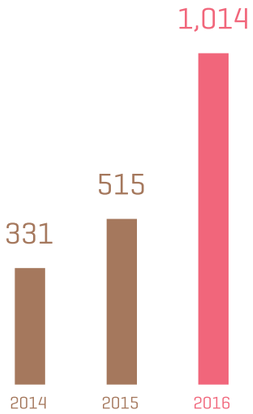
2016년 12월 누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시간제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예술인 시간제 보육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술인이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16년부터는 공연예술인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예술인으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금까지 총 5,525명의 예술인 자녀가 이용하였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1,860명

참여 예술인 수



참여 기관 수



2016년 12월 누적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과 지역, 기업 연계를 통해 예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기관 연계를 통해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고, 총 649개의 기관과 1,860명의 예술인이 함께했습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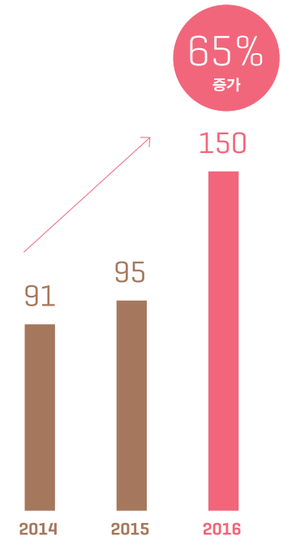
1,171명

년도	개인 심리상담	집단 심리상담	합계
2016	549명	142명	691명
2015	223명	136명	359명
2014	81명	40명	121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창작 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예술인의 마음도 살피고 챙깁니다. 2015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된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총 1,171명의 예술인이 상담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술인 신문고

336건



2016년 12월 누적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계 불공정행위에 대해 상담, 신고, 조정, 소송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여 2016년까지 총 336건을 접수하였으며, 2016년에는 150건이 접수되어 53건의 소송지원과 3건의 화해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107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심각한 질병과 치료비로 인해 고통받는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증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던 예술인 총 10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술인과 함께한 행복한 동행

2012년 11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든 '예술인의 복지 실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4년 동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일구어 온 눈부신 성과는 예술인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12. 11. 19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습니다.

4년

2016년 11월, 창립 4주년을 맞이한 재단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환경 구축을 위해 창작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의 4개의 사업 영역에서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명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동숭동, 소호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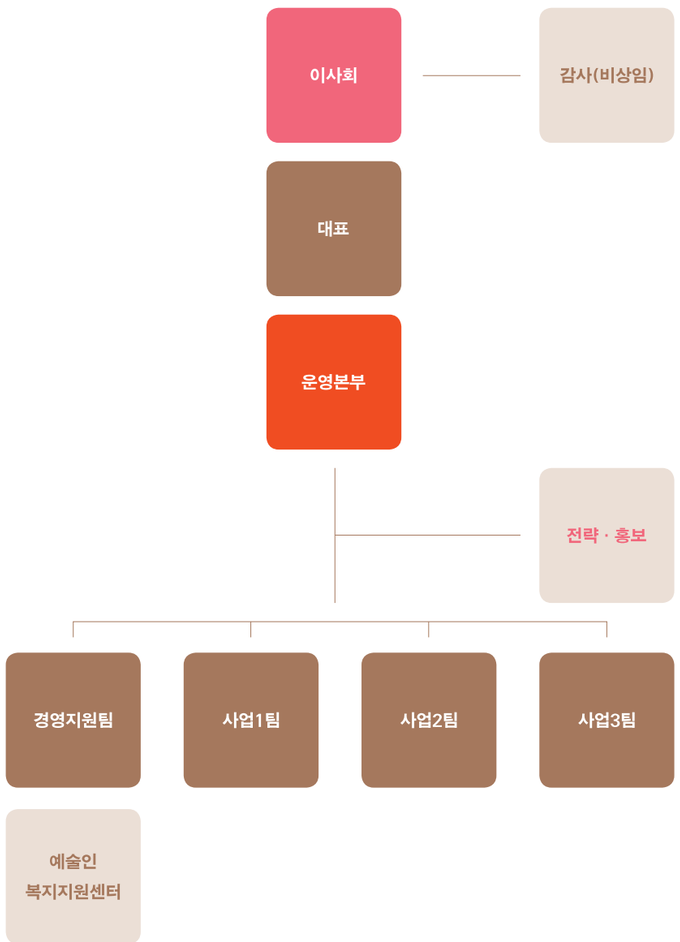
영문명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약칭 KAWF)

설립 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1년 11월 17일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관 제2조)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기능
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하고,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 예술인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10. 예술인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사무의 대행
11.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011	10.28	「예술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17	「예술인 복지법」 제정
2012	8.17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
	9.7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청회
	11.6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무회의 통과
	11.18	「예술인 복지법」 시행
	11.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김주영, 대표 심재찬 취임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11.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소식
2013	7.11	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 체결(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7.1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문화예술위원회)
	9.30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
	11.14	농촌재능나눔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한국농어촌공사)
	12.10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	2.4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2.24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오픈
	3.27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법인 지정
	3.31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대한법률구조공단)
	4.15	대학로 반디돌봄센터 개소
	5.14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6.19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업무협약 체결)
	7.16~7.17	창조산업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7.2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10.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 취임
	12.19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12.30	직제 개편 (2팀 → 1운영본부 4팀)
2015	1.29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4.1	연구자료기탁 업무협약(한국사회과학자료원)
	4.13	2015 예술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5.28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2016	2.3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5.4시행)
	2.11	문화·예술인패스 사업 이관
	2.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이문열 취임
	3.30	예술인복지 홍보대사 위촉(배우 이순재)
	8.9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9.21~2017 1.18	예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용인문화재단 등 총 14개 지역기관)
	11.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으로 확대(12.30 시행)
2017	3.14	마포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개소



전략·홍보
- 경영전략수립, 조사·연구, 평가·분석, 재단 홍보 등

경영지원팀
- 경영기획 및 예산편성, 자체감사
- 계약, 인사·노무·직원교육·근태관리
- 규정 제·개정 및 제도 관리, 법인 인감 및 직인관리
- 국회 및 대외 업무, 회계·총무 업무
- 웹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예술활동증명
- 문화·예술인패스
- 재단 사업 안내 및 응대
- 상담·컨설팅 지원 등

사업1팀
-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지원
-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불공정행위 상담 신고 접수 및 소송지원 등
- 예술활동증명 특례

사업2팀
- 창작준비금 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등

사업3팀
- 예술인 파견지원 등

직위	이름	비고	임기
이사장(비상임)	이문열	한국외국어대 인문대학 석좌교수	2016. 2.15~2019. 2.14
상임이사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2014. 10.22~2017. 10.21
	최동호	고려대 국문과 명예교수	2016. 2.17~2019. 2.16
	박인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정현욱	정동극장 극장장	
	선우재덕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이사(비상임)	홍승기	인하대학교 로스쿨 전임교수	2016. 2.17~2019. 2.16
	박우홍	한국화랑협회 회장	
	안호상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박종희	고려대 법학과 교수	
감사(비상임)	정병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16. 2.27~2016. 8.5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2015.12.28~2017. 2.2
당연직 이사(비상임)	이용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2015. 8.26~재직기간
	김종국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2014. 12.31~2016. 12.30

예술인 복지정책이 걸어온 길



준비기

2003~2008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제도화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현실적인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민간단체 차원에서 예술현장 개선 노력과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예술인 복지정책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정부에서 '예술 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 예술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추진 과제 제시.
- 민간단체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이 설립되었으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진입기

2008~201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공제회(가칭) 설립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되어 진전을 보지 못하던 '예술인 복지법안'은 2011년 2월 촉망받던 젊은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끊임없는 여론의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 2009년 예술인 지원에 대한 논의는 점차 활발해져 의원입법 형태로 「예술인 복지법」 제정이 추진.
- **2011년 2월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전병헌 의원),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최종원 의원)이 발의.** 제출된 4개의 법안을 수정 대체한 「예술인 복지법」이 2011년 10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17일 공포.
- **「예술인 복지법」 제정 1년 후인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 2012년 11월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본격 예술인 복지 업무 시작.

도약기

2013~

「예술인 복지법」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등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는 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정책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 제1차 개정(2013. 12. 30 시행)**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을 위해 개정이 진행되었다. 각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예술인 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 조성했다.
- **「예술인 복지법」 제2차 개정(2016. 5. 4 시행)**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용어를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창작역량강화 STABILIZATION OF CREATION

세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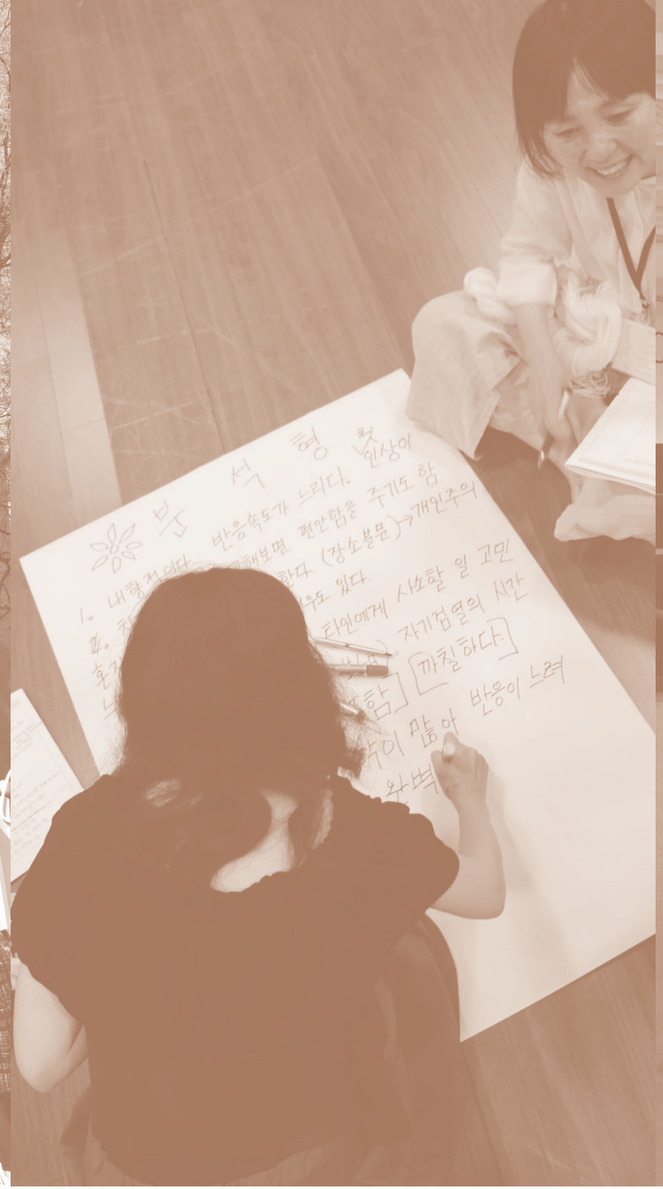
- 창작준비금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 예술인 의료비 지원



직업역량강화 DEVELOPMENT OF ARTIST'S CAREER SKILL

세부 사업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예술환경 개선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세부 사업

- 예술인 신문고
-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 예술인 법률상담 · 컨설팅
- 예술인 심리상담



사회안전망 구축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세부 사업

-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 · 국민연금)

창작역량강화 STABILIZATION OF CREATION

안정적인 생활이 창의적인 예술로

예술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창작역량강화' 사업은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예술창작 활동 및 직업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모해 희망과 창작의 따뜻한 햇볕이 되어줍니다.

* 창작준비금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 예술인 의료비 지원

창작준비금지원



11,214 누적 수혜 인원

3,000,000 1인당 지원금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입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 활동 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재단 대표 사업입니다. 2013년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창작디딤돌)',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2016년에는 예술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6년까지 총 11,214명의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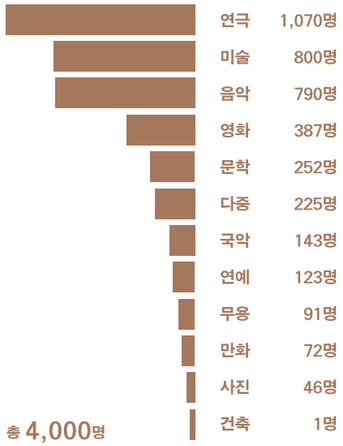
20 수혜 대상 예술 활동 경력 20년 이상

70 수혜 대상 만 70 세 이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척박한 땅에서 예술혼을 불살라 온 원로예술인 발굴에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평생 예술에 헌신해 온 원로예술인들을 제대로 대우한 뜻 깊은 사업입니다. 이는 예술 활동 지속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창작 활동의 기회가 적은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이 예술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지원금도 2015년 1인 200만 원에서 2016년 1인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 수혜인원은 합산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2016년 분야별 창작준비금 수혜자 현황



신청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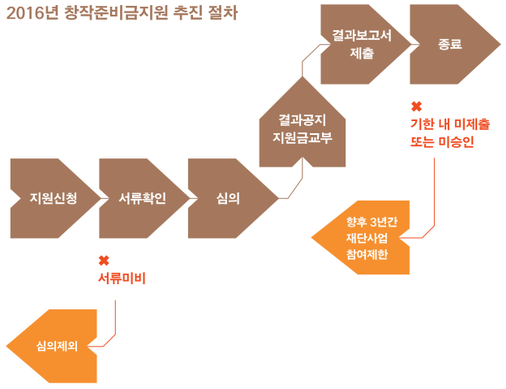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단,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는 갱신 후 사업 신청)

참여 대상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 및 실업급여 미수급 예술인
- 2015년도 및 2016년도(신청일 이전) 예술 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예술인
-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예술

2016년 창작준비금지원 추진 절차



예술인 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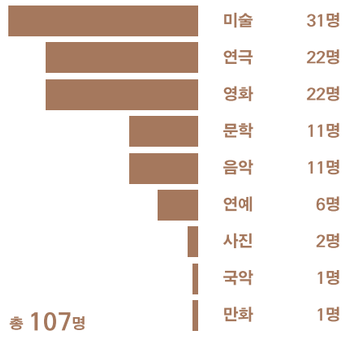


107 누적 수혜 인원

294,000,000 의료비 지원 총액

2013년부터 4년 간 시행된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중증질병과 과도한 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출' 상황으로 고통받는 예술인에게 의료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4년 간 시행된 의료비 지원금 예산은 총 2억 9천만 원으로, 이 사업을 통해 총 107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신청 자격은 중증질환자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80% 이하 예술인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 대신 예술경력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조항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현황



직업역량강화

DEVELOPMENT OF ARTIST'S CAREER SKILL

더 발전된 예술이 탄생하도록

'직업역량강화' 사업은 예술인 생활 지원이라는 단기적인 처방을 뛰어넘어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능력을 개발해 더 발전된 예술이 탄생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능과 기량이 빛날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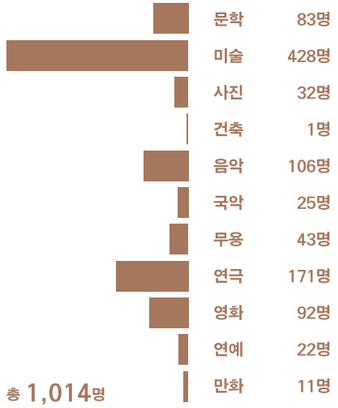


1,014 2016년 수혜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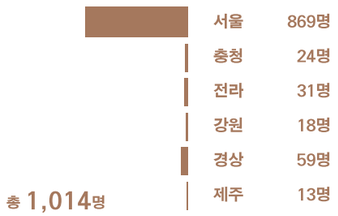
281 2016년 수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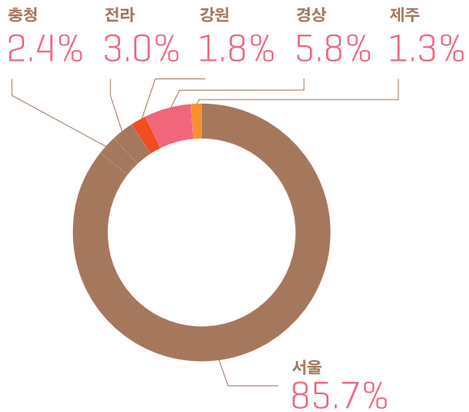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서브잡(Sub-job)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예술인 파견지원'은 예술인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며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기관, 지역과 예술인을 연결하고 적극 지원한 결과, 예술인의 활동 영역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장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2014년에 참여 예술인 331명과 참여 기관 178개에 불과했던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2015년에는 총 515명의 예술인과 190개 기관, 2016년에는 1,014명의 예술인과 281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농협중앙회, 한국메세나협회 등 3개 기관 연계를 통해 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예술과 마케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6년 분야별 예술인 파견지원 수혜자 현황



2016년 지역별 예술인 파견지원 현황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5,525 누적 수혜 인원

72 2016년 등록 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시간제 맞춤형 돌봄(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예술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2014년 서울 대학로에 개소한 '반디돌봄센터'는 국내 최초의 특정 직군을 위한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했던 시간제 돌봄 지원서비스는 2016년부터 전 분야 예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두 번째 시간제 돌봄시설인 '예술인자녀돌봄센터(예봄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24개월~10세 미만 자녀를 둔 예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은 시간당 500원으로 저렴한 이용 요금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예술인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소재지

반디돌봄센터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3길 5번지 아남아파트상가 301동 106동, 107호
전화 02)741-0339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4
전화 02)3143-1919

온라인 카페

café.daum.net/bandicare
café.naver.com/yebomcenter

예술환경 개선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위해

‘예술환경 개선’은 예술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고 예술창작 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예술인의 심리적인 고충을 해소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은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창작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줄 것입니다.

* 예술인 신문고
*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 예술인 법률상담·컨설팅
*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신문고



150 2016년 접수 건수

100 2016년 종결 건수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행정구제와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 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을 구축해 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신고 사건 접수 150건 중 3건의 화해조정과 53건의 소송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공증수수료 등 분쟁 중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며 1인당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2016년 금지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예술인 신문고 지원 절차

사전 상담 신고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및 전화, 온라인 신고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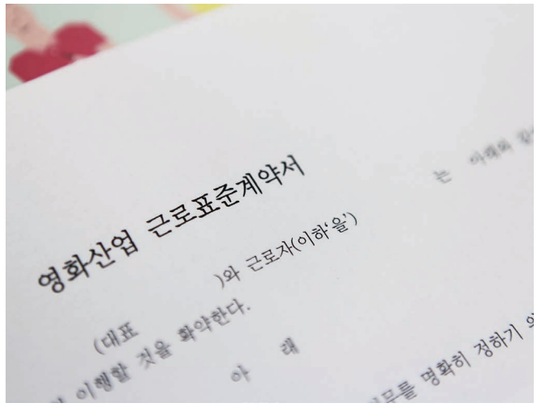
사실 조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 관계 조사 후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문화예술 공정위원회 상정
조사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 시 분쟁조정

시정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 거쳐 시정 명령 부과 / 시정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소송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비용 지원 가능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예술인
-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예술인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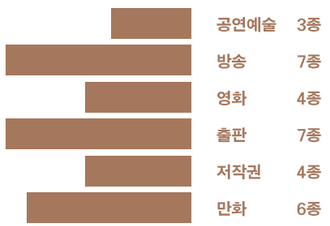
31 분야별 표준계약서 종수

2,256 2016년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수혜 인원(35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은 예술 현장의 무계약, 구두 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계약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단은 2013년부터 개발된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힘쓰는 것은 물론, 2015년 11월에는 ‘시각표준계약서 개발·보급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례를 수집하고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재단은 또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계약 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통해 실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은 크게 분야별 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업)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와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대학 내 관련 부서 및 단과대학과 연계한 ‘예비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특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아트마켓, 서울영상위원회, 수원문화재단 등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해 ‘찾아가는 저작권과 계약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예술인 법률상담·컨설팅



133 2016년 온라인 상담 컨설팅 건수

76 2016년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상담 건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예술 활동 과정에 필요한 법률상담·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다양하게 업그레이드해 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컨설팅'을 월 2회로 정례화했고,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및 일자리박람회와 연계해 무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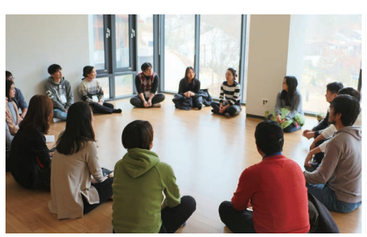


549 2016년 개인 심리상담 건수

142 2016년 집단 심리상담 건수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개인 심리상담과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했던 사업은 201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은 2015년 전국 21개에서 2016년 25개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까지 총 1,171명의 예술인이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13개 이외에도 강원권 2개, 충청권 3개, 경상권 3개, 전라권 3개, 제주권 1개 등 전국의 다양한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이 있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불편 없이 총 12회 무료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처음 시범 운영 후 만족도가 높았던 〈예술인 숲 치유 캠프〉를 비롯해 〈예술인 마음 치유 캠프〉, 〈지피지기〉, 〈자기성장과 치유〉, 〈술, 예술이 되다〉 등 다양한 예술인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예술인 마음 치유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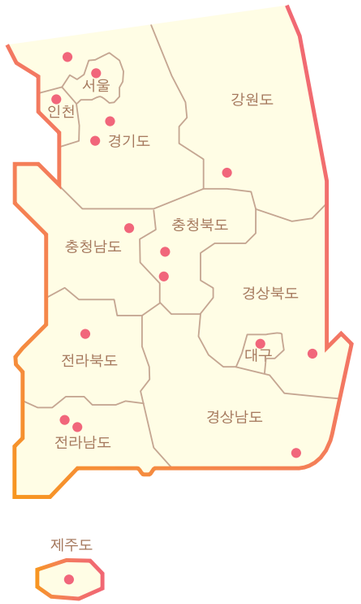
예술인 숲 치유 캠프



지피지기



예술인 심리상담센터 현황



수도권

다움심리상담센터(www.daumcc.com)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16 대정프라자 602호 02-2672-1377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www.mesc.co.kr)
서울시 중구 퇴계로32길 22 1층 02-821-5953

마음의숲심리상담센터(www.mindforest.co.kr)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대림아크로텔 2913호 02-2187-7499

세인임상심리연구소(www.seinpsy.com)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84 현대레이크빌 306호 02-6287-1275

심리상담센터 헤세드(hesed.or.kr)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84 대호프라자 225-1호 02-931-1307

이수심리상담센터(www.esupsy.co.kr)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68 (사당동1001-33) 2층 02-523-5283

한국영성심리상담센터(cafe.daum.net/innerpeace)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9 메이시티 오피스텔 1205호 070-4806-8774

행복찾기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8길 25 (대림상가 409B) 010-6335-0391

행복심리센터 밝음(www.behappy.co.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93 두산위브 파빌리온 B동 3027호
031-785-3777

향기나무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56번길 7 지오베르크 1016호 031-304-4985

로뎀심리상담센터(rodemplc.modoo.at)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스위트 514,
515호 031-904-4569

학습과사랑임상심리연구소(www.학습과사랑.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 파빌리온 A동 1411호 031-785-3987

마음애심리상담센터(www.melove.or.kr)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887 롯데아이원 502호 032-518-8087

강원권

지우심리상담센터(www.wisefriend.co.kr)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0 노빌리티타워 1703호 033-744-1579

상담센터나무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80 봄내병원 1층 033-257-2266

충청권

손애리심리연구소
대전 서구 둔산로 133 현대아이텔 422호 010-4174-0060

학습&마음심리상담센터(www.학습과마음.kr)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길 3202호 041-558-3837

충북심리건강센터(cbpsy.cafe24.com)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33 043-283-2841

경상권

강박사마음&학습상담센터(www.부산심리상담.com)
부산시 해운대구 양운로 98 대하프라자 8층 051-703-2870

참마음심리상담센터(www.cmaum.com)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1번 길 16 054-276-9175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www.smphc.org)
대구시 달성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306호 053-657-6571

전라권

심리건강연구소(www.cnupsy.org)
광주시 동구 남문로 758 2층 062-512-0039

최영미마음상담센터(www.happychoi.or.kr)
광주시 북구 동문대로 111 이상클리닉빌딩 4층 062-263-7942

온다라심리교육상담실(www.councenter.com)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영진빌딩 5층 501호 063-273-5496

제주권

내마음의 펭귄(www.pgofmind.com)
제주시 연화중길 12-9 301호 070-4213-8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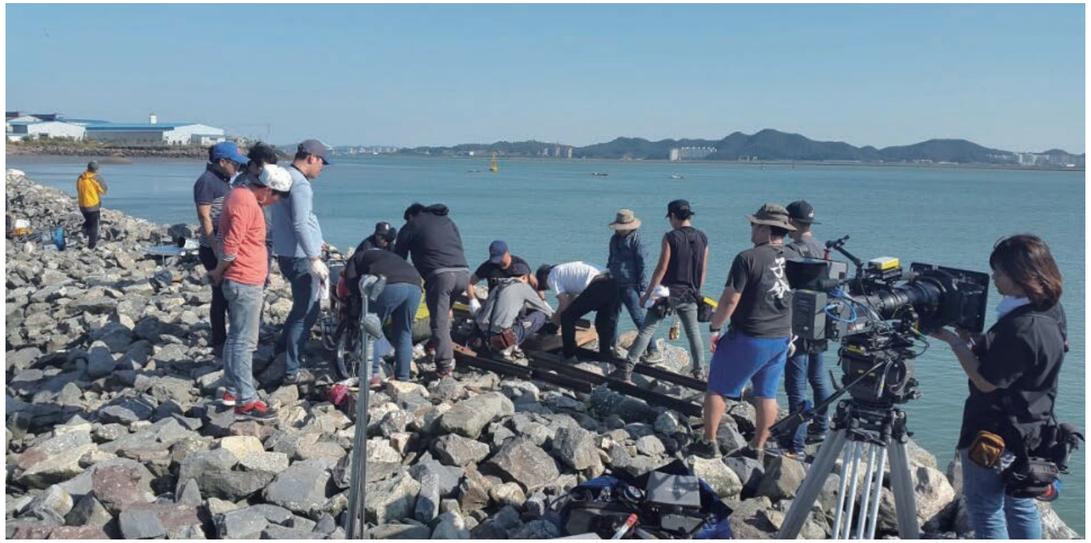
사회안전망 구축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행복한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은 예술인이 안정된 제도망 안에서 보다 행복한 예술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사회보장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한 중·장기적인 복지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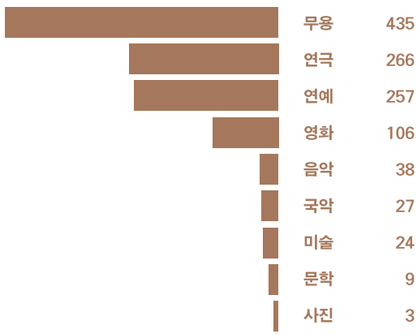
540 2016년 산재보험료 지원 인원

238 2016년 신규 가입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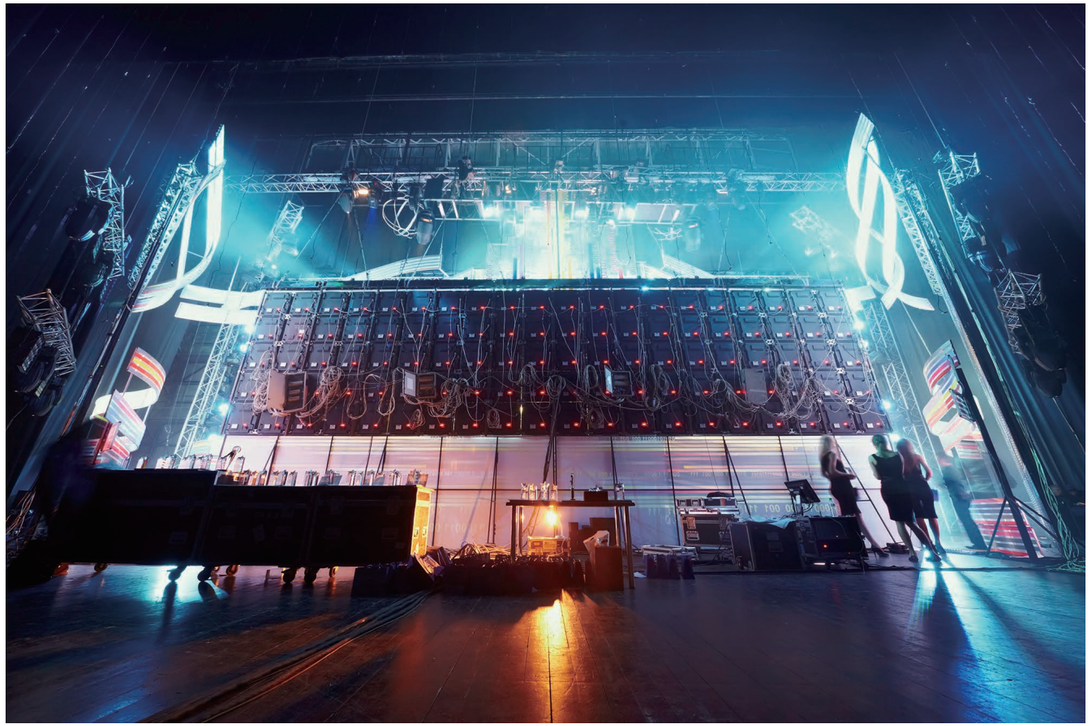
1,165 누적 가입 인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예술 활동 중 재해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예술인의 등급별 산재보험료를 50%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예술인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는 238명으로 전년도 89명 대비 260%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165명의 예술인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심적인 안정감과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예술 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 산재보험 누적가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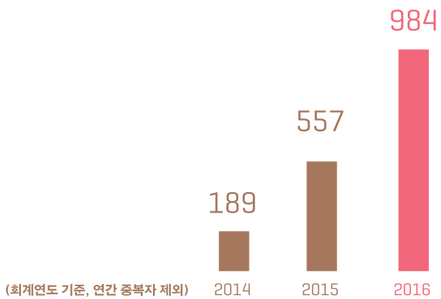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1,542 누적 수혜 인원

82 누적 수혜 단체

사회보험 제도는 일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도 활짝 열려 있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체결 사용 조건부 지원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산해 왔습니다. 이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한 산재보험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해 중·장기적으로 예술인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일지

JANUARY

1. 18 **예술인 창작준비금 1차 모집 공고**(1. 20~1. 29 신청접수)
1. 26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채용 공고**(1. 26~2. 10 접수)

FEBRUARY

2.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6년도 사업설명회**(서울, 아르코예술극장)
2. 26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퍼실리테이터 모집 공고**(3. 7~3. 14 신청접수)
2. 2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기업(기관) 모집 공고**(3. 10~3. 31 신청접수)

MARCH

3. 8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기업(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3. 2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3. 28~4. 15 신청접수)**
3. 23 **창작준비금 2차 모집 공고(4. 4~4. 29 신청접수)**







APRIL

4. 1 **2016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퍼실리테이터 선정결과 발표**
4. 4~4. 29
예술인 창작준비금 2차 신청접수
4. 6 **2016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및 모집**
4. 11 **2016 예술인 파견지원 만남의 광장 개최(서울, 마로니에 공원)**
4. 11~4. 27
창작준비금 신청하는 날 운영(10개 지역, 총 16회)
4. 15 **창작준비금지원 서류안내 모바일(웹) 서비스 안내**
4. 25~29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 강좌(미술, 만화, 문학 분야)
4. 29 **2016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선정 결과 발표**

JUNE

6. 17 **2016년도 농촌문화융성을 위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모집 공고(6. 17~6. 30 신청접수)**
6. 28 **2016년도 한국메세나협회 연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모집 공고(7. 1~7. 15 신청접수)**
6. 20~6. 21
2016 예술인 힐링 프로그램 〈예술인 숲치유 캠프〉(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
6. 27 **2016 예술인 힐링 프로그램 〈술! 예술이 되다〉**
6. 30 **예술인 창작준비금 3차 모집 공고(7. 11~7. 20 신청접수)**

2016

JULY

7. 4　2016 예술인 힐링 프로그램 〈지피지기: 마주보기〉
7. 11~7. 18
　　창작준비금 신청하는 날 운영(총4회)
7. 11~7. 20
　　예술인 창작준비금 3차 신청접수
7. 12　2016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공고

AUGUST

8. 19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8. 22　2016 예술인 힐링 프로그램 〈지피지기: 같이걷기〉



OCTOBER

10. 5~10. 7
　　서울아트마켓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예술인 신문고〉
10. 17~10. 19
　　2016 예술인 힐링 프로그램 〈자기성장과 치유〉
10. 25　창작준비금 4차 모집 공고(11. 1~ 선착순 마감)
10. 3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마감





NOV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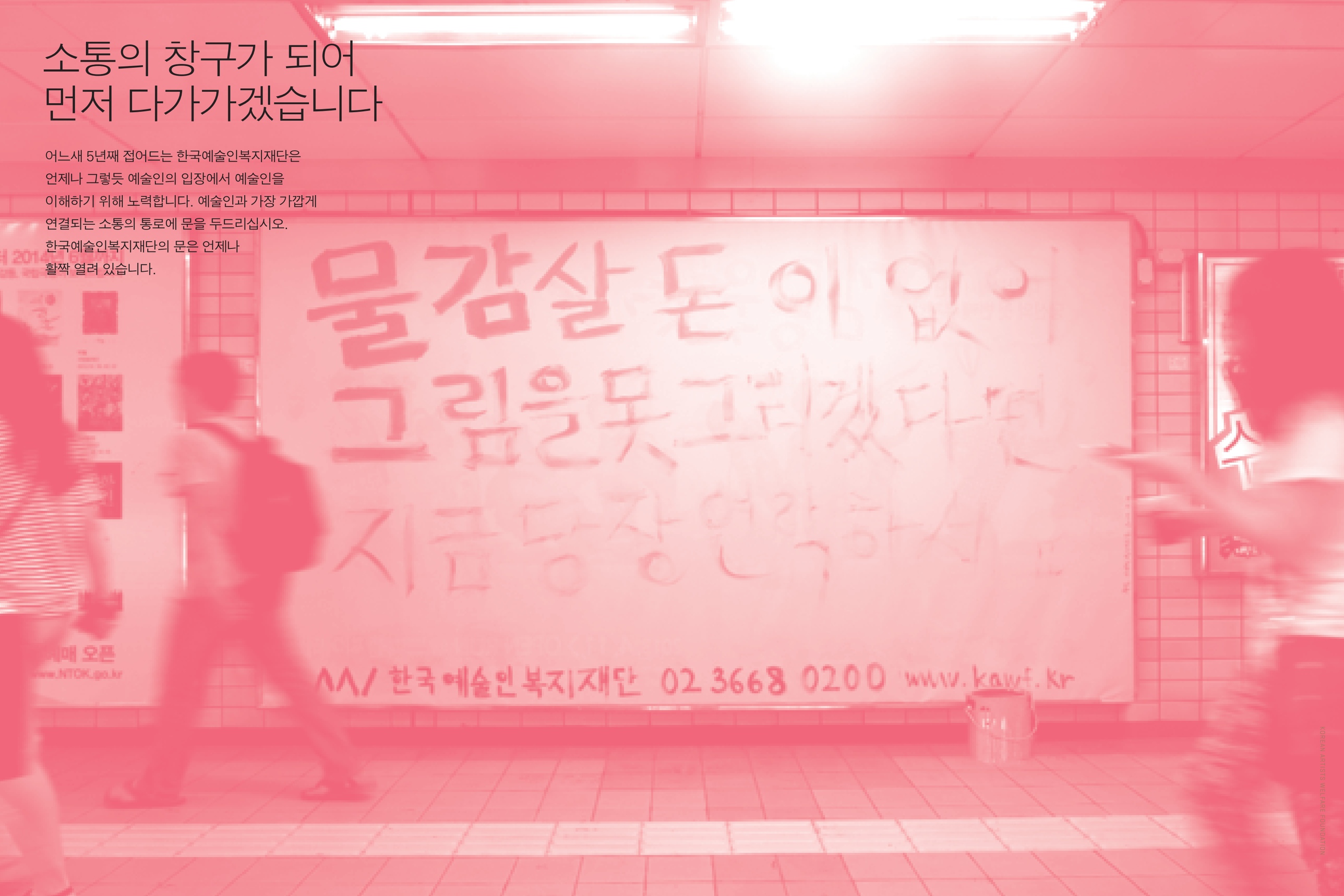
11. 1~11. 10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 교육(공연, 대중음악, 미술, 만화)
11. 3~11. 4
　　2016 예술인 힐링 프로그램 〈예술인 마음치유 캠프〉 1차
　　(홍천, 힐리언스선마을)

DECEMBER

12. 8~12. 9
　　2016 예술인 힐링 프로그램 〈예술인 마음치유 캠프〉 2차
　　(홍천, 힐리언스선마을)
12. 2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소통의 창구가 되어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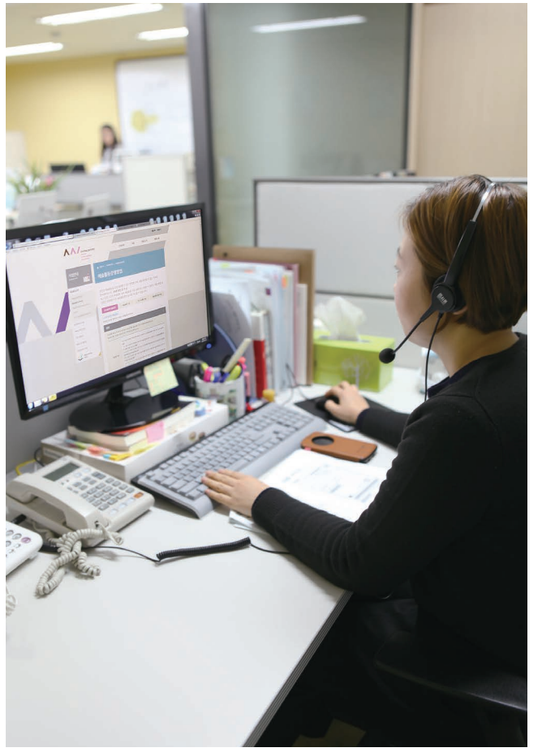
어느새 5년째 접어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언제나 그렇듯 예술인의 입장에서 예술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술인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소통의 통로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본 요건인 '예술활동증명'의 절차와 방법, 복지 지원 사업,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예술인들의 민원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2013년 9월 30일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개소,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예술인들의 고충상담 및 문의, 민원을 제일선에서 해결하는 창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상담과 문의를 원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에 있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예술인이 언제든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컴퓨터, 프린터, 다과류를 비치하고 있으며, 월 2회 변호사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등을 상설운영하는 등 예술인에게 밀접하게 다가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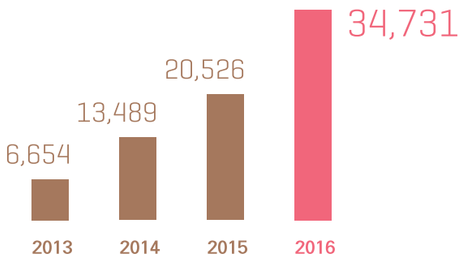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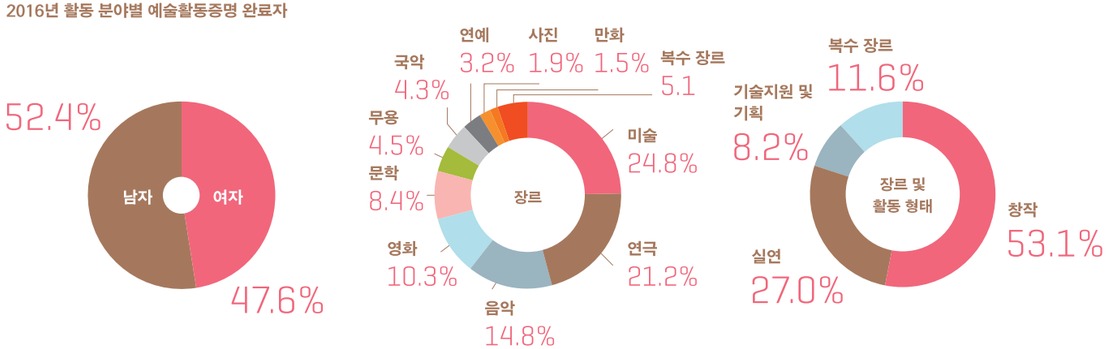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자 법적 근거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1개 예술 분야(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 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누적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34,73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과 예술 활동 수입 내용과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예술활동증명 연도별 누적 인원



2016년 활동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예술활동증명 혜택 ❶

예술인패스

33,258 누적 발급 인원
431 누적 참여 기관

2016년 2월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예술인패스 사업'을 이관받아 '예술인패스(Art Pass)' 카드 발급률을 높이고, 문화예술인패스 참여 기관 확대에 힘써 왔습니다. 예술활동증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예술인패스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방송, 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해 자긍심을 높이고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2016년 12월 기준,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는 총 33,258명으로 전년 대비 336% 성장하였으며, 참여 기관은 431개로 71% 증가하였습니다.

예술인패스 신청 방법

개인 회원 가입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개인 회원 가입

로그인 — 로그인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선택

선택 — 좌측 하단 예술인패스 배너 선택

신청 완료 — 우측 카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완료

예술활동증명 혜택 ❷

예술인 행복주택

5,293 2017년 1월 행복주택 모집
140,000 2017년 행복주택 공급계획

예술인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예술인을 위한 주거복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예술인이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2017년까지 총 14만 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으로, 2017년 1월까지 전국 13개 지역에 5,293호의 행복주택을 모집하였습니다. 행복주택 모집 공고는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를 통해 가능하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예술인복지법」제6조(예술인의 경력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를 위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PC버전 : www.kawfartist.kr, www.koreanartists.kr, 모바일 웹 : m.kawfartist.kr, m.koreanartists.kr)을 구축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24일 운영을 시작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예술활동증명을 근간으로 하여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연 단위 사업이나 상시 사업에 대한 안내와 온라인 신청 접수 등을 지원합니다. 예술인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가입 및 갱신, 예술인 복지 원스톱 서비스, 포트폴리오 관리 등 재단의 사업에 참여하고 예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단 홍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위해 애쓰고, 사회적으로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가 인정받아 그 결과 예술인 복지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히 재단 사업을 예술인에게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예술인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재단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 홍보, 지면 광고, 옥외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예술인을 직접 찾아가 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예술인들이 다소 낯설어 하는 사업 참여 방법을 재단 직원이 직접 안내하는 '창작준비금 신청하는 날' 서비스 등 권역별, 장르별 예술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대면 홍보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예술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기관을 늘리고,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도 전국적으로 그 숫자를 확대하였습니다.

2016년 4월부터는 매달 이메일로 재단의 주요 소식들을 전했던 기존의 뉴스레터를 〈예술인복지뉴스〉로 창간하여 보다 전문적인 기획과 예술인 맞춤형 정보 확대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뉴스〉는 온라인 뉴스레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면 형태의 소식지를 통해서 전국의 예술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다각도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트위터), 재단 블로그를 상시 운영하면서 재단 사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 재단 주요 행사에 대한 프리뷰와 리뷰를 전달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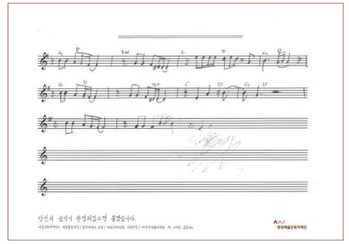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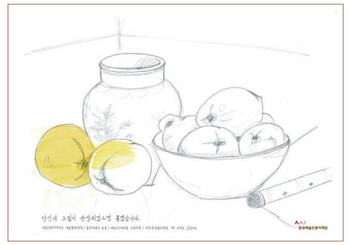


www.kawfartist.kr



지하철 광고





www.facebook.com/kawf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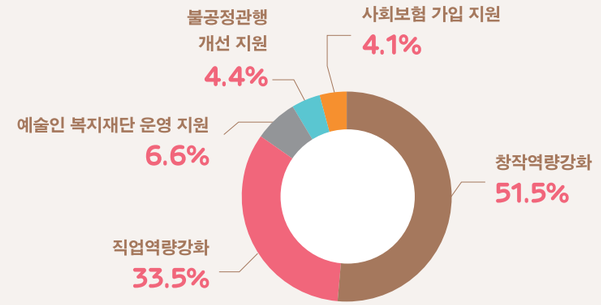
2016년 예산

세부사업명	2015	2016
창작역량강화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11,000,000	12,700,000
직업역량강화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6,253,000	8,266,000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870,000	1,080,000
사회보험 가입 지원	500,000	1,000,000
예술인 복지재단 운영 지원	1,775,000	1,636,000
총계	**20,398,000**	**24,68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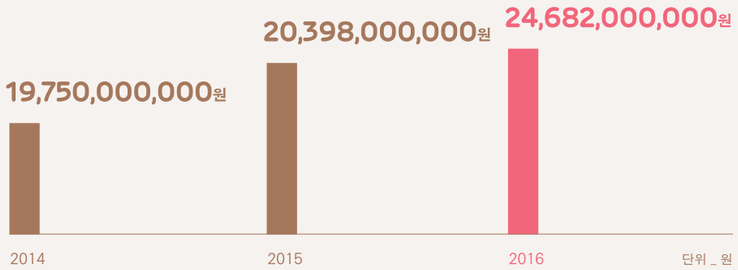
단위 _ 천 원(국고 기준)

2016.12.31 기준

2016년 사업별 예산 편성



2014-2016 예산



고마워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법」 덕분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버텨 왔습니다. 저에게 「예술인 복지법」은 계속 작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미술)

예술인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 감사합니다.
오성민(문학)

힘들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박한석(음악)

앞으로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동환(음악)

복지법 시행 5주년 축하드립니다!
복지재단 설립 4주년 역시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하여 국내 문화예술계가 안정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지영(만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희정(미술)

「예술인 복지법」으로 예술인들의 근로환경이 더 나아짐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술인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겠습니다.
김한나(연극·음악)

전엔 몰랐는데 조금씩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여러 지원사업과 활동이 눈에 많이 보여서 좋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안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은비(미술·만화)

고맙습니다.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예술 활동에 정진하기란 무척 힘이 들지만 덕분에 든든합니다.
이혜정(미술·만화)

우선 개인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4주년과 「예술인 복지법」 시행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직 예술인이라 말하기 어려운 작가 지망생이지만, 이렇게 예술인을 도와주려는 복지재단이 생겼으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모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형준(문학)

지원사업 추진 등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화 문의에도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발전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찬주(미술)

모르는 점이 많은데 여러 가지 예술 활동과 복지사업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육종원(미술)

예술인들을 위해 한 해 한 해 기회와 지원을 늘려 나가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통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더 많은 예술인들이 그들이 가진 전문성 있는 능력으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술인들,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직원분들 파이팅입니다!
구환(음악)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예술인으로서 체감하는 복지의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패스와 같이 문화예술에 기여하고자 하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복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많은 예술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현택(국악)

일반인이 보는 예술인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심지어 예술인들끼리도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와 선입견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의 현실적인 고충을 「예술인 복지법」으로 타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상은(미술·연극)

모든 일의 시작은 계약부터입니다.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인 문화예술계가 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혜택과 사용하지 않을 때의 강력한 페널티, 그리고 찾아가는 계약 관련 교육 및 법률상담 등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홍태화(영화)

20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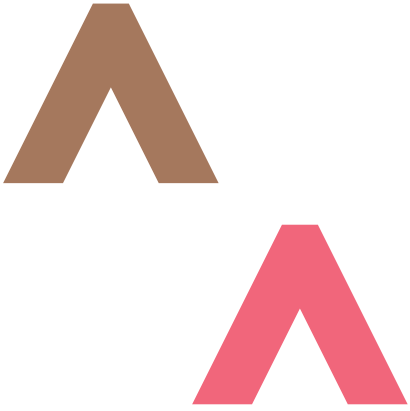
발행일 2017. 5. 1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박계배

편집 전략·홍보팀 김가진

기획 및 집필 봄 프로젝트
디자인 시호워크
인쇄 영은문화인쇄(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www.kawf.kr